



강의기본자료

社會主義는 왜 失敗했는가

教授 申 喆 均

통일연구소

차 례

1. 世界史의 흐름에서 退潮하는 共產主義	3
2. 共產主義란 어떤 體制였는가?	7
가.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의 限界露呈	10
나. 非民主的 一黨獨裁體制	15
다. 非人間的 全體社會主義體制	18
3. 社會主義國家의 改革·開放이 일으킨 變化와 葛藤	22
가. 舊蘇聯에서의 變化—聯邦의 解體와 「獨立國家聯合」의 登場	22
나. 東歐에서의 變化	35
4. 아시아 共產主義의 緩慢한 變化	44
가. 中國	44
나. 베트남	51
다. 其他	52
5. 結 言	53
<主要 參考文獻>	56

1. 世界史의 흐름에서 退潮하는 共產主義

제2차 세계대전은 全體主義國家(독일·이태리)와 軍國主義國家(일본 등)에 대한 聯合國(미·영·불·소)의 승리로 끝났다.

전후 세계는 전시중의 全體主義·軍國主義國家들이 빚은 전쟁의 참화, 독재, 반인륜적 비극을 반성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自由와 民主主義의 전 세계적 복음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전후 ‘힘’의 관계가 美·蘇兩極化體制라는 대립된 동맹관계로 발전 확대됨에 따라 전후세계는 서방의 民主主義와 蘇聯共產主義라는 양극적 이데올로기로 대립되어 왔던 것이다.

美·蘇兩極體制하에서 소련은 세계적화라는 정치목표하에 군사적 팽창주의로 나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서방은 自由와 人權, 創意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 그 가치관을 ‘生活方途(way of life)로서의 民主主義’로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戰後의 서독정부는 히틀러의 全體主義時代를 반성

하고 民主市民으로서의 정치교육을 시행, 민주시민의 자질을 바탕으로 경제를 부흥하여 결국은 東獨을 흡수 재통일할 수 있었다.

반면에 蘇聯은 스탈린의 동구 위성국화와 더불어 東獨을 서방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西獨을 위성국화하려고 하였으나 현격한 경제력 차이로 인해 東獨은 西獨에 흡수당하고 말았다.

전시중 軍國主義國家였던 일본은 패망의 쓰라림을 안고 戰後 세계 최저의 군사비억제하에 대서방 선진 산업기술 도입과 수출지향적 무역확대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제1의 經濟大國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共產主義國家의 경우 초기에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여 주었다. 공산국가들은 정권수립 후 集團化를 거쳐 重工業優先政策을 채택한 초기에 西方보다 일시적이거나 국력의 우월을 자만하던 때도 있었다. 1956년 蘇聯 흐루시초프 공산당서기장은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소련의 GNP가 1970년대에는 美國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에는 남북한 경제력 비교에서 북한이 우위였다고 평가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한의 국력우위가 전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朴正熙 대통령의 「8·15平和統一構想宣言」이었는데, 어느 쪽이 더 잘 사는지 남북한이 善意의 경쟁을 하자고 촉구한 내용이었다.

共産國家들이 초기 단계에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높은 발전속도를 보여준 까닭은 그 성장을 보장해주는 ‘成長加速要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성장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혁명 이후 공산당이 제시한 ‘未來의 靑寫眞’에 속은 근로대중의 生産熱意가 발동되었다는 측면이고, 둘째는 농업집단화라는 原始的 資本蓄積으로 얻어진 資本이 있었기 때문이다.¹⁾ 셋째는 공산국가들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바로 군수산업육성정책인바, 美·蘇冷戰 양극화시대에서의 국력평가의 제1요소가 경제력이 아닌 軍事力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加速要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진되어 버리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要因創出(기술혁신, 경영혁신, 물질적 자극강화 등)에 실패한

1) 康仁德, 「社會主義國家의 變化相」(통일연수원, 1991), pp.33-34.

결과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말았던 것이다.

국력평가의 제1요소였던 軍事力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탈냉전구도가 발전되어 가면서 국가이익 위주의 經濟戰爭시대에 그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세계사적 흐름은 인간의 福祉, 精神的 安樂과 幸福에 위해되는 국가상층부의 독재는 이제 인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당과 국가상층부의 정치·경제·사회 및 모든 부문에 걸친 중앙집권적 통치 행태는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가 갖고 있는 ①개 개인의 주체성과 창의성 발양 ②상품의 질적 향상을 유발하는 경쟁성 ③자유와 동기 유발 ④인간존중과 다원주의가치관의 장점에 밀려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공산국가들의 개혁적 지도자들은 깨닫게 되었다.

소련에 있어서의 改革의 시원은 멀리는 흐루시초프 때부터, 가장 가깝게는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 정책의 강력한 추진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제 그 여파가 東歐에 연쇄적으로 확산되어 북한·쿠바를 제외한

全共產世界는 지금 市場經濟原理 수용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1992년 4월 방한하여 頂上會談을 가진 바 있는 하벨 체코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공산주의의 종말은 人類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다. 그것은 인류역사에 있어 한 중요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공산주의는 역사발전에 있어 막다른 골목이었으며, 軍事力에 의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 생활, 양심, 인간도덕 그리고 다원주의 가치관에 대한 低抗性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²⁾

2. 共產主義란 어떤 體制였는가?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으로 등장한 볼셰비키정

2) 朝鮮日報(1992. 4. 24.字)

바츨라브 하벨 舊체코슬로바키아대통령이 4월 26일 訪韓前 프라하에서 가진 조선일보 金大中 主筆과의 특별회견에서 “이 시대 공산주의는 종언을 고했으며 社會主義國家들은 경직된 관료주의를 쇠퇴시키고 참된 ‘市民主權’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위성국들의 政綱政策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제시한 바대로, 한결같이 “...자본주의 계급사회를 청산하고 근로대중이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社會主義國家를 수립하여 인민대중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풍요로움이 충만한 平等社會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約束은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 중 단 한 나라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나타난 현실은 그들 약속과는 정반대의 정치경제적 不平等과 빈곤의 平準化 그리고 인권억압이 자행된 黨관료지배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였다.

전체주의적 통치행태는 非人間的 억압행태를 자행하게 된다. 예컨대 스탈린의 최초 5개년계획(1928~1932년)을 보면 불가江·돈江을 잇는 運河, 그리고 工場은 당시 모두 노예화된 囚人에 의해 건설되었다.³⁾

3) 康仁德, 「社會主義國家의 變化와 對韓半島 影響」(통일연수원, 1992), p.4.

스탈린은 이렇게 하면서도 “새로운 인간을 創造”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人間이란 사전에 의도된 형태의 개조된 인간으로서 그 결과, 현명한 사람은 모조리 학살되었으며, 단지 평균화된 ‘凡庸的 인간’만 이⁴⁾ 남게 되었다. 이는 바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인간을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현상은 스탈린이 바로 자기 국민을 상대로 戰爭을 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수천만명이 무엇때문인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갔다. 스탈린치하에서 3세대를 거치는 동안 무려 5천만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民族의 유전자염색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근로대중을 나라의 主人으로 규정한 프롤레타리아트독재는 극소수의 공산당 간부의 專制權力을 허용하는 1당독재로 변모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근로대중은 KGB의 정치적 테러에 의해 가차없이 제거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生産手段(공장, 기업소, 토지 등)의 국유화,

4) 康仁德, 같은 책, p.6.

5) 康仁德, 같은 책, p.6.

농업의 집단화를 실시하고 중앙집권적 命令經濟體制를 실현하였지만, 국가경제건설과 생산을 관장하는 관료들의 특권을 허용하여 生産者大衆은 자신이 창출한 생산물에서 완전 소외되고 말았다.

모든 言論은 당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인민의 信仰生活은 금지되었으며 각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당지배자에 의해 원천적으로 통제되는 全體主義社會를 실현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말살된 전체주의사회에서 인간의 創意力이 발휘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로써 경제성장은 沈滯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생활은 점차 窮乏한 상태로 변해 갔다. 늘어나는 국민의 不平과 不滿, 심화되는 지식인의 體制批判, 급락한 경제력은 공산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타개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이것이 바로 體制改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가.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的 限界露呈

1990년 4월 20일자 이즈베스티야紙에 실린 보로

비요프의 논문 “레닌과 우리의 역사적 운명”⁶⁾은 오늘날 소련의 社會主義體制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책임을 레닌의 불세비키혁명 때문으로 돌리고 있다.

본래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이 가르친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은 주지하다시피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폭력적 계급투쟁을 통해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수립하고 사회주의의 최종단계인 共產主義社會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최초로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일어난 社會主義革命은 최고발전단계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인구의 80%가 농민인 후진국 러시아에서 성공한 것이었다.

러시아같이 자본주의가 미발달한 사회에서 敵對階級인 부르주아가 축적할 만한 ‘富’가 존재할 리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독재라는 전

6) 康仁德, 같은 책, p.7.

대미문의 강력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위로부터의 社會主義革命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그의 代理人을 人民大衆 위에 군림케 하고 지극히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工業化와 近代化를 위한 ‘원시적 축적’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르주아 없는 농민의 農業集團化와 1928년 중공업 대규모 集團經營策의 일환으로 농민 모두를 콜호스에 강제 편입시켰다.

1928~1932년 농민이 강제로 끌려 들어간 콜호스는 그것이 협동농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收容所였다.

바로 이런 상황은 社會主義經濟體制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서 이런 방식이 보편 타당한 人類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얼마나 동떨어진 방식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러시아의 경제부진은 마치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그 다음 단추들은 연쇄적으로 뒤틀리게 되는 결과’나 다름없다.

환언하면 마르크스 唯物史觀의 그릇된 인식과, 자본주의 미발달단계의 소련 농촌 풍토하에서 레닌의

독재정치 수립과정의 과도적 소산으로서의 파장이 그 淵源이 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경제자문위원이며 소련 과학아카데미會員이고 동 아카데미 경제학부 당서기인 샤탈린 교수는 소련 社會主義經濟體制의 결함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전체주의적 국가소유가 파산했다는 것이다. 經濟的 準則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準則에 따라 國家的 所有를 모든 곳에 심으려 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문제의 근원으로 되었다.

생산의 저효율, 과학기술분야의 만성적 낙후, 생산물의 고품질보장의 무능력, 소비부문을 무시한 생산 부문에의 편중 등의 문제를 낳은 것은 바로 全體主義的 國家所有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로, 비효율적인 형태의 農業制度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黨官僚들이 자기의 정치(이데올로기)적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農民國家에서 생각해 낸 구조이며 전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된 농업구조이다. 실제로 콜호스는 국제색타화하였고, 본질적으로 協同組合 등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고, 명칭만 존재했을 뿐이다. 手工業
協同組合도 폐지되었다. 이데올로기화한 무능한 獨
裁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경제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변형·폐절되었다.

셋째로, 현실을 전혀 각색하지 않고 사실을 기반
으로 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전체적인 像을 볼
때 가장 효율이 낮은 방법에 의존하였다는 것이다.
外延的인 발전의 길, 노동자원과 물적자원의 소비현
상이 에스컬레이션하는 길, 官廳的 ‘開發’과 생산을
위한 생산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中央委員會政綱
案의 경제프로그램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國家的 所有制와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였고 鄧小平의 말
대로 ‘大釜鍋飯的 經濟’가 ‘貧困의 平準化’를 가져왔
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의 말대로 이런
상태로는 21세기의 “사회주의국가는 선진공업국가
의 과학기술적 植民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 것”이다.⁷⁾

7) 康仁德, 「社會主義國家의 變化相」(통일연수원, 1991), p.14.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革命的 改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 非民主的 一黨獨裁體制

아파나세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17년 10월혁명 이후 항상 존재했던 것은 黨의 獨裁였다. 순수한 형태로서의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프롤레타리아獨裁가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닌은 10월혁명 이전부터 당에 의한 독재를 생각하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적 역할’이라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레닌은 ‘前衛黨理論’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前衛黨이라는 것은 완전한 黨獨裁로 변질하기 위한 객관적 전제조건이었다.”(「소련형 사회주의의 재검토」)

위에서 인용한 아파나세프 교수의 말은 바로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는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명분하에 一黨獨裁를 시현했다는 말이며, 그 결과 당을

장악하고 있는 독재자의 절대적 권력을 출현시켰다는 말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 연구소장이었고 趙紫陽 前總理의 1급 브레인이었던 嚴家其 教授는 오늘의 중국을 鄧小平 통치하의 전형적 專制政治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대의 중국역사에서는 명의상 皇帝나 國王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共和國’이라는 이름 뒤에, 또는 ‘社會主義’라는 깃털로 장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專制政治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現 專制制度의 체제하 현저한 특징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특징은, 國家의 最高權力은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며, 이 권력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구와도 分割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특징은, 個人의 손에 집중된 최고권력의 移讓은 生前에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특징은, 최고권력계승에는 序列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 중국에서 과거의 毛澤東이나 오늘의 鄧小平

은 皇帝의 칭호를 갖고 있지 않은 皇帝이며, 실질적인 獨裁者이다.”(「中國은 결코 共和國이 아니다」)

위 嚴家其 교수의 글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는 바로 反人民的·反民主的 體制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일당독재 또는 일인지배하의 사회에서는 응당 독재자의 시녀로서 權力과 富를 향유하는 관료들의 支配體制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노멘클라투라」(간부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계층)라는 특수한 支配集團이 형성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장악되어 거대한 官僚體制가 형성된다.

흔히 말하는 네가지 사회주의-‘全體主義的⁸⁾ 社會主義’, ‘封建的 社會主義’, ‘兵營的 社會主義’ 그리고 ‘官僚的 社會主義’-중 그 어느 하나도 민주주의와는 먼 거리에 있는 정치체제이다.

8) Friedrich, Brzezinski는 全體主義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essence of totalitarianism is to be seen in such a regime's total control of the everyday life of its citizens, of its control, more particularly, of their thoughts and attitudes as well as their actives ... the particular criterion of totalitarian rule is the creeping rape of man by the perversion of his thoughts and his social life...”

이런 때문에 자각한 知識人이나 눈 뜬 民衆은 소련형 정치체제에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되고 누적된 불만이 일시에 폭발할 경우 차우셰스쿠의 悲劇이나 天安門廣場의 비극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공통된 특징으로 프리드리히 (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①人間生活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 ② 1인지배의 유일대중정당에 의한 통치 ③黨과 비밀 경찰에 의한 테러체제 ④대중매체의 독점 ⑤武力의 독점 ⑥전체 경제의 중앙통제 등 여섯가지를 들고 있는데 북한 사회도 이 점에서 레닌, 스탈린체제와 같은 全體主義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⁹⁾

다. 非人間的 全體社會主義體制

아파나세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지금이 10년 전의 브레즈네프시대였다면

9) 李相禹外 共著, 「북한 40년」(乙酉文化社, 1988). p.16.

오늘 우리들이 말한 것 때문에 몇번씩이나 7+5(收容所 7년과 流刑 5년의 처벌)를 받았을 것이다. 反體制人士들은 흔히 이러한 판결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폐지되었지만 刑法 제70조에 규정된 소비에트사회·국가체제에 대한 계획적 中傷이라는 이유로 이런 처벌을 받았다. 이 조문은 외국인과의 인터뷰 내용만 가지고도 7+5를 8회씩이나 선고받아야 했다.”

경제에서 도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에 있어서 反國民的인 것, 자연에 反한 非人間的인 것이 바로 소련형 사회주의였다.

폴란드 출신의 저명한 철학자인 코라코프스키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짜 社會主義社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 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출근 경찰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회.
- ② 자기 의견을 말하면 不幸하게 되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
- ③ 해외여행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지 않는 국가.
- ④ 간호부보다 스파이가 많고 병원보다 감옥에 있

는 사람이 더 많은 국가.

⑤ 일하는 근로자보다 重役이 더 빨리 늘어나는 국가.

⑥ 거짓을 말하지 않고서는 지낼 수 없는 국가.

⑦ 정부가 국민의 權利를 정할 수 있지만, 국민이 정부의 權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국가.

⑧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고립된 국가.

⑨ 너무나 우울한 사회, 차별이 있는 체제, 국민이 바라는 것을 듣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국가.

⑩ 都市의 관광용 지도가 국가기밀로 취급되고 있는 국가.

⑪ 언제나 선거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국가.

⑫ 자기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국가.

⑬ 歷史家가 政治家의 머슴이 된 국가.

⑭ 병에 걸린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는 국가.

⑮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국가.

⑩ 자기를 비판할 사람과 그 비판의 방법을 지정해 주는 국가.(「社會主義의 苦惱와 新生」)¹⁰⁾

오늘날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서 인용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검토해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소련에서는 70여년간 그리고 동유럽, 중국, 북한에서는 4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KGB에 의한 공포가 항상 모든 기관, 모든 가정, 모든 사람 위에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다.

이런 사회야말로 소위 조지 오웰의 정치소설 「1984년」에서 나오는 全體主義社會가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이 인간 본래의 基本權을 상실하고, 자기 노동에서 소외된 비인간화된 사회가 바로 스탈린주의적 社會主義社會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일찍이 “보통선거 그리고 어떤 자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出版 및 集會의 자유, 자유로운 論爭— 이런 것들이 없다면 모든 共產制度에서의 생활은 滅

10) 康仁德, 앞의 책, p.24.

하여 거짓 생활이 되며 官僚들만이 제도의 活動的 要素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바로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로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였던 까닭에 개혁이 일어났고, 때문에 ‘歷史의 必然性’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3. 社會主義國家의 改革·開放이 일으킨 變化와 葛藤

가. 舊蘇聯에서의 變化—聯邦의 解體와 「獨立國家聯合」의 登場

소련의 變化 징후는 1953년 스탈린사망 후 權力 鬭爭에서 승리한 흐루시초프가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충격적인 스탈린 비판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國際解氷과 平和共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言論의 自由許容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85년 3월에 헤성과 같이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

노스트'라는 '新思考' 정책으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軍事的 冷戰史를 종식시키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관리시스템의 改革과 정치사회부문에서의 多元的 民主主義, 사회주의적 人民自治 그리고 體制批判을 허용했다.

고르바초프의 新思考政策은 오늘날 東歐의 개혁·개방의 효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東·西데탕트 추세를 크게 촉진시켰다. 1988년 4월 獨自社會主義를 선언한 新베오그라드宣言, 브레즈네프의 '主權制限論' 수정 등은 동구권의 개혁과 변화를 촉진시켰다.¹¹⁾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自由·民主化 開放政策이 활짝 열어놓은 변혁의 시대에도 진통과 부작용은 속출하였다.

黨관료들의 부정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생산을 저해하는 온갖 부작용이 표출되었다. 억눌렸던 국민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함으로써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부문에서 무정부적 혼란이 확대되었다. 특히 국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일용품공급이 순탄치

11) 申喆均,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민주통일론: 통일문제篇」 (통일연수원, 1992), p.275.

않아 국민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1922년에 등장한 레닌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체제에 강제 병합되었던 각 共和國들의 독립운동이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드디어 1991년 8월 19일 일부 보수강경세력의 쿠데타가 들발했으나, 엘친이 주도하는 모스크바 民主市民의 강렬한 저항으로 쿠데타는 3日天下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聯邦과 共產黨은 존속할 것으로 보았으나 소련상황은 예기치 못한 급변을 가져온 것이다. 1991년 8월 24일 고르바초프는 共產黨 書記長職을 사임하고, 12월 25일에는 大統領職을 사임하게 됨에 따라 소비에트연방은 사실상 68년 만에 해체되었고, 「獨立國家聯合」(발트3國 및 그루지야共和國를 제외한 11개 共和國으로 구성)이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공화국에서는 보리스 엘친이 直選制 선거를 통해 1991년 6월 13일 대통령에 취임했다.¹²⁾

12) 申喆均, 앞의 책 p.286.

(1) 急進改革과 保守回歸間的 葛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6월에 直選에 의해 들어선 보리스 옐친 정부의 집권 1년(1992. 6)여가 지난 현재 러시아共和國의 현실은 政治·經濟·社會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진통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불세비키혁명 이후 70여년간 共產硬直體制下에서 길들여온 러시아사회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과 옐친의 급진개혁정책이 지향하는 市場經濟原理 수용으로 하루아침에 西方諸國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급진개혁정책의 일환인 ‘價格自由化’ 시책이 짧은 기간 안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옐친 정권하의 급진개혁기수인 에고르 가이다르 총리서리는 1992년 1월 ‘價格自由化’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해 보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해 동안 物價가 무려 20배 가까이 오르게 반해 임금은 겨우 3~5배 인상되는데 그쳤으며, 기업의 생산은 20%나 감소했다. 또한

失業者數는 1992년 1월 현재 5만 9천명에서 同年 12월 말엔 90만 5천명으로 폭증했다.¹³⁾

러시아의 주력산업인 석유생산도 감소추세에 있고, 국내 전체 산업근로자의 4분의 1인 9백만명이 고용되어 있는 軍需産業의 民需産業으로의 전환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가이다르 정부는 무엇보다도 通貨政策에 실패했다. 1991년 말 1달러당 35루블에서 1992년 말에는 490루블까지로 평가절하되었다.

엘친 정권의 급진개혁정책이 가져오는 가격자유화, 민영화, 통화억제 등의 ‘충격요법’이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성공하기에는, 그리고 공산통치기간중 굳어진 의식이 市場經濟에 맞는 의식으로 전환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엘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는 保·革葛藤의 심각한 權力鬭爭에 기인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엘친은 특히 모스크바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直選大統領으로 급진개혁

13) 世界日報, 1992. 12. 10.字

정책을 실천하려는데 반해, 舊소연방 때의 산물인 最高人民會議은 하스블라토프 의장이 주도하는 舊공산세력인 保守勢力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민회의와 옐친 대통령이라는 保·革세력간에 필사의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제7차 러시아人民代表大會¹⁴⁾(1992. 12. 1.~12. 14)에서 보수세력들은 옐친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市場經濟의 기수인 에고르 가이다르 총리서리를 퇴임시키고 중도 보수세력이며 軍產複合體의 대표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54세) 에너지부총리를 새총리로 선출했다.

이 노멘클라투라들은 국민이 직선한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와 장관 임명권까지 박탈했다.

옐친은 改革에 대한 저항을 받을 때마다 인민대표대회를 해산하거나 대통령직할통치를 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나 제7차 인민대회에서 그의 權限이 더욱 제약을 받은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인 國民投票마

14) 한국일보, 1992. 11. 30.字

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채 1993년 4월의 제8차 인민 대회 때까지도 계속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신임총리는 가이다르 前 총리서리가 추진해 온 市場經濟改革政策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점진적’인 수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체르노미르딘 새총리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국가’가 다시 경제운용에 적극 관여한다는 입장이다. 즉 국가통제하에 긴축재정정책으로 물가 및 인플레이 억제, 루블貨의 안정을 통해 다시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急進改革과 保守回歸間의 갈등은 CIS 내 타 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며, 구 소련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에서도 지난 1989년 집권했던 民主勢力이 정권을 상실하고, 1992년 11월에 舊소련공화국 때의 共產主義勢力이 재집권하는 상황도 초래했다.¹⁵⁾

개혁과 보수회귀의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있을 것이나, 보수세력도 市場經濟原理의 수용이라는

15) 국민일보, 1992. 12. 18.字

그 역사적 방향에 대해서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적어도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지속될 지의 여부는 현 상태에서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自由市場經濟와 국민의 自由·福祉의 지향이라는 역사방향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2) 獨立國家聯合(CIS)의 葛藤과 分裂

1917년 10월 볼셰비키혁명 이후 1922년에 등장했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슬라브계 3국이 결성한 「슬라브共同體」가 모태가 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발트 3국과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共和國으로 1992년 1월 1일 공식 출범했다.¹⁶⁾

이 CIS체제는 영국의 英聯邦 형태와 비슷하다. 엘친(러시아), 크라프추크(우크라이나), 슈시케비치(벨

16) 申喆均, 앞의 책 p.287.

로루시) 등 3명의 슬라브계 공화국 수뇌들은 CIS 창설협정에서 군축에 노력하며 非核地帶化와 중립을 지향하고 핵병기의 통일관리를 위한 統合司令部를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經濟政策調整’에 관해서도 ①완전한 시장 메카니즘을 창설한다. ②民族通貨를 발행한다. ③價格自由化를 실시한다. ④通貨發行량을 조정하여 경제의 안정성장을 지향한다 등을 규정했다.¹⁷⁾

(3) 共同體認識의 缺如

그동안 CIS頂上會談이 1992년 12월까지 여덟차례 있었으나 1년여가 경과한 오늘의 CIS의 장래는 한마디로 불투명하다. 國家聯合이란 체제로 출발한 CIS는 共同體認識이 결여되었기에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집단안보협력에 있어서의 不調和, 경제협력상의 갈등, 여기에 더욱 民族紛糾의 내연으로 총체적 진통을 겪고 있다.

17) 統一院, 「月刊 北韓動向(附: 周邊情勢)」(1992. 1)

러시아, 카자흐 등 통합지향적 공화국들과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등 분리지향적 국가들간의 兩極化現象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92년 5월 제5차 정상회담에서 11개 가맹국 가운데 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아르메니아 등 6개 공화국만이 集團安保協力協定을 체결한 이후 사실상 CIS는 二元體制로 분화된 상태이다.

1993년 1월 4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 우즈베크, 투르크멘, 키르기스, 타지크)이 CIS에서 이탈해 「中央亞人民聯邦」 창설을 선택함으로써 CIS체제를 더욱 붕괴위기로 몰아 넣었다.¹⁸⁾

(4) 經濟協力과 葛藤

1992년 10월의 7차 정상회담에서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대통령이 제안한 「共同經濟同盟創設案」이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등 분리지향적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8) 국민일보, 1993. 1. 5.字

이 제안은 각국이 경제부문에서의 行政權을 공동 화해와 상호의존이 불가피한 共和國들간의 협력체제로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체제가 러시아공화국의 입김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리지향적 국가들의 反러시아감정이 발동, 무산된 것이다.

그 대신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스, 투르크멘, 아르메니아 등 7개국들이 루블地帶 創設協定에 서명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는 이들 국가들간에는 앞으로도 루블화를 決濟通貨로 하는 경제교류협력관계가 강화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나머지 공화국들은 루블貨經濟圈에서 정식으로 탈퇴하게 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러시아가 기실 1992년 11월 루블貨圈 탈퇴국가들에게 석유, 가스 등 에너지수출에 대해 硬貨決濟와 국제시세적용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권 2원화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¹⁹⁾

19) 世界日報, 1992. 12. 25.字

(5) 核統制權 다툼

군사부문에서 CIS는 형식적으로 統合軍體制를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共和國들이 독자군을 이미 구성했거나 추진하고 있어 통합군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러시아의 통제하에 두기로 한 戰略核武器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합의이행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통제권을 주장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黑海艦隊 통제권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초래했다가 겨우 공동통제에 합의해 ‘뇌관’은 제거되었지만 크림반도 영유권문제가 남아 있어 불씨가 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6) 民族紛糾－民族大移動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舊소연방지역 및 동유럽지역에는 민족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곳곳에서 유혈민족분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세계는 民族戰爭의 시대로 들어갔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살던 곳에서 줄지에 외국인이 돼버린 人口가 모두 4천만명에 이른다. 러시아인이

면서 러시아공화국 밖에서 살게 된 人口만도 2500만명이다.

이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이외의 다른 공화국에서는 少數民族으로서 분규의 주체가 되고 있다. 예컨대 에스토니아는 자국 내 거주하는 47만 5천여명의 러시아인들의 投票權을 박탈해 버렸다. 우크라이나인, 벨로루시인, 라트비아인들도 함께 2등국민 취급을 당했다.

오는 2000년까지 舊소련 내에서만 1천만명 이상이 故鄉을 찾아 이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분규가 가장 심각한 곳이 黑海와 카스피海 사이의 카프카스지역 공화국들과 몰다비아, 중앙아시아의 타지크 등이다.

민족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도 20~30만명의 難民이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공화국 바깥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만도 약 7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²⁰⁾ 특히 中亞人

20) 朝鮮日報, 1993. 1. 17.字

民聯邦創設(1993. 1. 4) 선언 이후 매우 걱정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타지크內戰으로 6천여명의 우리 韓人 난민이 발생, 인근 지역으로 피난이 불가피해 졌다.

특히 舊소련지역 중 가장 많은 韓人이 정착하고 있는 우즈베크에서는 18만 韓人에 대해 올해 안으로 우즈베크를 떠나라는 최후통첩이 전달되었다 한다.²¹⁾

이들 한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東歐에서의 變化

주목되는 것은 공산권의 변화 중 러시아공화국을 비롯한 「獨立國家聯合」의 공화국들은 정치, 경제, 사회의 엄청난 불안을 겪고 있으나 東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民主化, 開放化 추세가 증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가고 있

21) 朝鮮日報, 1993. 1. 20.字

다. 그러나 유고는 민족내전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냉전상태에서 東歐諸國간 兩大協力體制의 하나였던 코메콘(COMECON)이 1992년 6월 해체되고 동년 7월에는 바르샤바조약기구(WTO)도 해체됨에 따라²²⁾ 東歐諸國은 EC, IMF, IBRD 등 서방협력체제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東歐諸國 중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이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서구지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文化原形이 서방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88~1989년 개혁·개방과정에서 東歐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몰락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헝가리의 경우 1989년 10월 黨大會를 개최하고, 黨의 명칭을 「社會黨」으로 개칭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黨의 지도적 역할, 民主集中制 등 이른바 공산당이 지녔던 모든 특징과

22) 통일원, 「月刊 北韓動向(附：周邊情勢)」(1991. 12), p.22.

특권 전부를 포기하였다. 영국의 勞動黨이나 프랑스의 社會黨, 서독의 社會民主黨, 스웨덴의 社會民主勞動黨의 정강정책을 모방하여 民主社會主義 政黨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舊공산당은 1990년 3월과 4월의 自由選舉에서 온건 중도의 헝가리민주포럼과 보수적인 小農業者黨에게 완패하여 野黨의 말석을 차지하게 되었다.²³⁾

경제적으로는 市場經濟化 측면에서 동구국가 중 헝가리가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1988년 여름부터 바웬사가 지도하는 솔리다르노스치(聯帶, 自由勞組)의 데모가 시작되자, 폴란드공산당은 이에 굴하여 「聯帶」와의 圓卓會議를 개최하고 1989년 6월에는 자유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때의 선거는 上院은 완전히 自由選舉, 下院은 65%의 의석은 선거 이전에 공산당과 그 友黨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35%만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실시하고 보니 上院은 共

23) 劉國平, 「蘇聯東歐國家對社會主義發展」(湖南省: 湖南人民出版社, 1991. 5)

産黨의 완전패배, 下院은 共產黨의 99% 패배로 나타나 下院議席 161席(전체의석 중 35%의석) 중 공산당은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어제까지 공산당의 友黨이던 정당들이 「聯帶」에 접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야르젤스키 공산당 당수도 共產黨政權首班을 단념하고 「聯帶」 주도의 마조비츠키정권수립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24명의 각료 중 공산당은 국방, 내무 등 4명이 入閣했을 뿐이었다.

폴란드공산당은 1990년 1월 당의 명칭을 「社會民主黨」으로 바꾸었고, 1990년 12월 선거에서는 대통령에 바웬사가 당선되어 폴란드공산당은 야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東獨의 경우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東獨共產黨의 당원은 230만이었다. 전체인구 1700만 중 15%가 당원인 셈이다.

그러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침몰하는 화물선에서 도망쳐 나가는 쥐떼처럼 당원의 脫黨이 시작되어, 1989년 말까지 30%가 줄어들더니 1990

년에는 평균 하루에 1만명씩 탈당하였다. 이에 당황한 黨指導部는 동년 2월 ①1990년 5월에 자유선거 실시 ②당의 지도적 역할 포기 ③黨名の 民主社會黨으로의 변경 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3월 중순에 실시된 東獨自由選舉에서 民主社會黨(구 공산당)은 東獨기독교민주동맹(西獨의 콜 수상이 영도하는 당의 姊妹政黨)에게 완전 패배하여 결국 西獨에 흡수 통합되어 國家마저 상실되는 참담한 말로를 걷게 되었다.

체코의 경우 1989년 11월 17일 15,000명의 학생이 중심이 된 데모가 발생하자, 야케시 공산당정권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체코국민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7일간 연속 데모를 전개하여 결국 8일 만에 야케시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다.

동년 11월 27일 체코공산당은 자유선거 약속,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포기를 선언하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反體制組織인 「77헌장그룹」의 초대 대변인이었던 바츨라브 하벨(劇作家)이 대통령에 취임하는가 하면, 1968년 「프라하의 봄」 때 反革命罪로 당에

서 추방되었던 알렉산드르 두브체크가 國會議長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나서 1990년 6월 自由選舉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市民포럼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공산당은 정권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1992년 7월의 聯邦議會選舉에서 하벨 대통령이 지지확보에 실패하여 연방대통령직을 전격 사임함에 따라, 이어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되고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각각 분리 독립되었다.

불가리아의 경우는 1989년 11월 35년간 당서기장을 지낸 지프코프가 해임되고, 1990년 1월에는 당의 지도적 지위를 포기하였으며, 1990년 4월에는 당명을 社會黨으로 바꾸었다.

1990년 6월에 실시된 自由選舉에서 사회당이 국민의회의 과반수(400석 중 211석)를 차지하여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연일 계속되는 데모에 의해 政情은 매우 불안하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1989년 12월 16일 티미쇼아라

에서 反차우세스쿠 데모가 일어난 지 1주일 만인 12월 22일 차우세스쿠 대통령 부부가 체포되고, 正規軍과 保安警察軍간의 내전이 있었으며,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차우세스쿠夫婦의 처형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

이와 같은 난리중에 권력을 잡은 조직이 「救國戰線評議會」이다. 동 평의회의 지도자였던 일리에스쿠는 본래 공산당중앙위원이었다.

1990년 5월에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救國戰線評議會」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일리에스쿠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재야세력은 “구국전선평의회는 옷을 갈아입은 공산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고, 데모와 탄압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政情이 매우 불안하다.

1992년 9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일리에스쿠 대통령은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東歐의 孤島’로 지칭되었던 알바니아는 1992년 3월 총선에서 승리한 中道右派의 베리샤 대통령취임(4월 9일) 및 메크시 내각구성(4월 18일)

등 그들 역사상 최초로 民主政府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舊공산당출신 관료의 축출, 舊공산당소유 재산의 몰수 등 공산잔재 청산을 통한 民主化改革을 추진하고 있다.²⁴⁾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대변혁 이후 東歐諸國의 정치변화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붕괴와 民主化의 진척이라 할 것이다.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國名도 바뀌었다. 人民共和國을 共和國으로 변경한 폴란드, 헝가리가 그렇고, 동독은 나라이름조차 완전히 잃어버렸다.

여기에서 정치체제 변화과정을 보면 黨內改革派의 주도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體制變革을 당내 개혁파가 주도함으로써 평화리에 급진전되었지만, 루마니아의 경우처럼 당내 개혁세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民衆蜂起’라는 혁명적 방식으로 공산체제 자체를 붕괴시켰다.

동유럽의 변혁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공통점은

24) 통일원, 「月刊 北韓動向」(1992. 6), p.70.

당내 개혁파가 중심이 되든 민중봉기에 의하든 공산
당독재체제가 일단 무너지기만 하면, 정치적으로는
議會民主主義로 이행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市場經
濟原理 수용으로 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각국의 정치적 변화는 응당 對外政策의 변
화를 가져와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은 물론 ‘유럽國
家로의 回歸’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세계는 脫冷戰時代로 접어들었는데도 지구
촌 최악의 민족전쟁을 2년 가까이 끌고 있는 것이
유고內戰이다.

1980년 티토가 사망하자 유고연방은 통합의 구심
점을 상실해 갔다.

유고슬라비아聯邦이 1991년 4월 23일 공식 소멸
된 가운데 그 자리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공식승인 보류상
태) 등 새로운 민족국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만
으로 이루어진 新유고聯邦이 생겨났다.

연방소멸과 동시에 1992년 4월 舊유고연방에 속
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일어난 內戰은 지
금까지 최소한 2만여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3백만명

의 난민을 속출시켰다. 특히 보스니아 내의 세르비아계 民兵隊는 밀로세비치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의 지원하에 回教徒와 크로아티아人 등 타 민족을 썩 쓸어내는 이른바 ‘人種淸掃’를 단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와 유엔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美國은 직접개입이 가져올 희생을 우려해 유엔에 의한 平和案 제시로 內戰을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그 장래는 불투명하다.²⁵⁾

4. 아시아共産主義의 緩慢한 變化

가. 中 國

舊소련 및 東歐에서는 개혁·개방이라는 체제의 급변이 일어났으나, 아시아의 共産國家들(중국·북한·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은 오히려 상호 사상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1991년 8월 소련에서의 쿠데타 실패와 소련공산당 및 연방의

25) 조선일보, 1992. 12. 30.字

해체 등의 충격이 중국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鄧小平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다.²⁶⁾

1977년 7월에 등장한 등소평의 실용주의 집단체제는 ‘社會主義 現代化建設’을 당면목표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였다.

경제근대화추진은 2단계로 나누어

① 제1단계는 今世紀 末까지로 국민총수입 1조달러, 1인당국민소득 8백~1천달러를 실현하고,

② 제2단계는 금세기 말부터 2030~2050년까지로 4개 현대화(農業·工業·科學技術·軍事)를 실현, 선진국경제 수준에 접근시킨다는 것이다.²⁷⁾

지금 놀라운 것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으로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1992년에 14%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1987년 10월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대행의 趙紫陽은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라는 정치보고에서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을 전개하여 “우

26) 통일원, 「月刊 北韓動向(附 周邊情勢)」(1992. 7), p.88.

27) 申喆均,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민주통일론-통일문제篇」(통일연수원, 1992), p.299.

리나라는 이미 社會主義社會에 들어갔으며, 初級段階에 있다.”고 했다.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을 요약하면 “중국의 사회주의는 1953년에 시작된 대규모건설과 사회주의개조의 시기를 거쳐서 1956년에 실현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半植民地와 半封建社會의 상태에서 별안간에 社會主義社會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시장·상품경제라는 발전단계가 결여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사회주의사회라고는 해도 初級段階에 불과하며, 이 단계에서는 시장·상품경제를 도입하여 소유제의 多樣性을 인정하면서 집단경제나 기업의 自主管理에 맡기는 것이 生産力의 향상과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중국적 특색을 갖는 社會主義建設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책”이라는 것이다.²⁸⁾

1992년 1월 19일 鄧小平은 深圳經濟特區를 위시하여 남방시찰도중 각지에서 중요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를 ‘南巡講話’라고 부르는데, 江澤民 총서기는 2월 11일부터 정치국 전체회의에서 이를 전달

28) 통일원, 「月刊 北韓動向」(1992. 7), p.85.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개혁·개방의 성과가 없었더라면 「6·4天安門事態」를 수습할 수 없었다. ②지금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절호의 기회로서 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③개혁·개방의 추진에 반대하는 자는 辭職하라. ④개혁·개방의 추진에 수반하는 犯罪者들을 철저히 적발하라. ⑤‘右’의 영향보다는 ‘左’의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 ⑥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없었더라면 그후 3년간의 순조로운 경제환경의 정비와 경제질서의 정돈은 있을 수 없었다. ⑦黨 12期 6中全會에서 부르주아自由化 반대를 20년간 계속해야 한다고 한 바 있으나 지금으로 보아서 그 이상 걸릴 것 같다. ⑧第3世代에서 指導者를 구해 보았으나 부르주아自由化 반대문제로 모두가 실패하였으므로 시급히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⑨자본주의를 두려워할 것 없이 대담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하라. 등이다.²⁹⁾

중국은 1992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14全大

29) 통일원, 「月刊 北韓動向」(1992. 2), p.88.

(第14次 全國代表大會)를 5년 만에 개최하였다. 江澤民 총서기는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 속도를 높여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政治報告를 행했다. 이 정치보고는 시장경제실시의 필요성으로 경제구조의 합리화, 생산성향상, 발전의 가속화,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을 들면서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14全大의 특징은 21세기를 향한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했다는 점이다. 2백명의 元老顧問委員會가 폐지된 것 등은 8老의 혁명세대로부터 테크노크라트중심의 實務世代에로의 이행을 의미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독특한 것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保·革이 공존하도록 세력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구조의 핵심은 여전히 江澤民-李鵬 體制로 나가되 鄧小平死後 1백년계획의 黨路線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鄧小平 權力體制移行의 핵심은 1당독재체제 견지하의 경제정책이다. 이 점이 舊소련, 東歐와 다른 점

이다.

이는 정치이데올로기원칙 견지하의 經濟改革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하나의 中心, 둘의 基本點’에 입각하여 공산당체제를 견지하고 社會主義現代化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中心’은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이고 ‘둘의 基本點’은 4대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말한다.

정치사상면에서 4大基本原則은 ①사회주의의 길 ②무산계급의 독재 ③공산당의 지도 ④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澤東사상의 견지이다.

이 기본원칙은 이미 1979년 全國理論工作 ‘務虛會’에서 부르주아자유화 방지를 위해 밝힌 것이다.³⁰⁾

세계사의 흐름에서 共產主義가 종말을 맞고 있는데도 鄧小平의 정치사상면은 변한 것이 없다.

이 기본원칙 견지하에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개의 基本點’은 분명히 모순되는 것으로서 ‘鄧小平路線’의 딜레마다.

30) 통일원, 「月刊 北韓動向」(1992. 7), p.84.

그는 이 딜레마를 一黨獨裁의 臺灣의 경험과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 같다.

중국경제의 資本主義化를 우려하는 시각 차이에서 鄧小平의 개혁파와 陳雲(1992년 사망)의 보수파가 대립되어 왔다. 보수파 陳雲은 덩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경제(새장 <鳥籠> 경제)하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陳雲은 이 ‘새장경제론’³¹⁾을 주장하여 종종 제동을 걸어 왔다. 이 ‘새장경제론’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으나 덩소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權力均衡의 安定’ 유지하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여기서 덩소평의 ‘黑貓·白貓論’을 재상기시켜 두고자 한다. 그는 ‘市場經濟’는 자본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計劃經濟’도 사회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있다고 한다. 또한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따질 것이 아니라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시장경제, 계획경

31) 馬洪 著, 「現代中國經濟」(北京: 中國出版社, 1991. 5), p.627.

제 차별할 것 없이 人民이 유복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制度이던 족하다”라고 했다.

나. 베트남

舊소련, 東歐의 급변과는 달리 베트남을 비롯한 중국, 북한과 같은 아시아공산주의국가들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공산주의이데올로기를 유지하되, 경제적 측면에서는 改革·開放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韓國軍의 월남전개입으로 30여 년 간의 敵對 傷痕을 안고 있는 관계에서 17년 만인 1992년 12월 22일 韓·베트남수교로 과거불행을 청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미 1986년 12월 베트남공산당이 제6차 당대회에서 베트남版 페레스트로이카인 ‘도이모이(쇄신)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도모우이 공산당서기장과 보 반 키에르 총리를 정점으로 1992년 초 야심적인 경제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오는 2000년까지 베트남의 현 GNP(1인

당 2백달러)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議會도 시장경제의 장려와 외국인의 국내자산 보유를 허용하는 새로운 憲法改正案을 채택했다.

1945년부터 시작된 胡志明의 문맹퇴치운동으로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文盲率이 가장 적고, 훌륭한 근로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어 베트남의 미래는 밝다. 이같은 긍정적 요소는 ‘베트남 社會主義’의 자주노선을 가능케 할 것이다.

베트남은 석유·무연탄·밀·쌀·고무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어 貿公側은 韓-베트남수교로 3~4년 안에 양국교역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²⁾

다. 其 他

쿠바는 소연방의 붕괴로 치명적 타격을 받고 있다. 1991년 9월 이후 쿠바 주둔 蘇聯軍의 철수가 시

32) 康仁德, 앞의 책, pp.42-43.

작되고 군사원조는 물론 경제원조도 중단되었다.

공산권의 붕괴 움직임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카스트로 대통령은 1991년 10월 黨大會를 개최하고 카스트로체제의 유지, 복수정당제 도입반대 등 종전과 같은 共產獨裁體制의 견지를 확인하는 한편, 파탄 직전에 있는 경제재건을 위해 새로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적인 經濟開放路線을 결정하면서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에 들어와서는 헌법개정에서 ‘社會主義理念’ 삽입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宗教가 서서히 부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5. 結 言

共產主義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확실히 종언을 고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기본적 욕구 그리고 창의력, 인간의 존엄성을 제약 또는 말살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요소들이 보장되면 그 사회는 個人을 포함하여 家庭에서부터 민족구성원 전체가

生産性 및 國富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바로 이 基本的 良心, 道德, 價値觀에 위배된다.

마르크스의 결정적 오류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所有慾’을 좌절시켰다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私有財産의 부정으로 나타났다. 共產主義는 이 요소들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全體主義 獨裁政治로 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體制는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로 가게 되었고 비민주적 일당독재체제, 비인간적 전체주의사회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西歐의 自由·民主文化의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헝가리·폴란드는 제대로 가고 있는 듯하나, 오랜 共產獨裁體制下에서 자유, 민주의 생활의 식이 결여되어 있고,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러시아공화국을 비롯한 獨立國家聯合國들은 엄청난 진통과 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어 市場社會主義로부터 市場經濟로, 다시 資本主義經濟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솟는 물가,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대, 각종 퇴폐산업의 번창 등 經濟社會倫理의 倒壞現象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資本主義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에 먼저 눈뜨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이들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資本主義로의 전환에 더욱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이의 해결문제를 둘러싸고 改革·保守派間의 권력투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여기서 雪上加霜으로 공산주의 붕괴 후 민족분류가 ‘시한폭탄’으로 나타나 佛哲學者 에드가 모렝이 말한 대로 ‘인종차별’, ‘인종청소’ 등 ‘현대적 野蠻主義’가 팽배해 가고 있는 현상이다. 民族主義가 反動的 民族排外主義를 배양해서는 안된다.

복잡하고도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을 保·革間 협력을 통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들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다.

民主主義의 정착과 經濟社會福祉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세월을 요하고, 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保·革갈등이 심각한 진통을 수반해도 역사의 방향은 정치적으로는 民主化, 開放化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市場經濟體制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는 兩者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공산사회의 개방을 가장 自己同質化하지 않고 있는 북한도 體制改革과 對外開放 없이는 그들 경제를 되살릴 방법이 없을 것이다.

< 主要 參考文獻 >

- 康仁德, 「社會主義國家의 變化相」(통일연수원, 1992)
- 康仁德, 「社會主義國家의 變化와 對韓半島影響」(통일연수원, 1991)
- 統一院, 「月刊 北韓動向(附 周邊情勢)」
1991년 12월호~1992년 11월호(12卷).
- 申喆均,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民主統一論－統一問題篇」(統一研修院, 1992)
- Carl J. Friedrich &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

tatorship & Autocracy」(2nd ed.;New York : Praeger, 1965)

- 李相禹外 共著, 「북한 40년」(乙酉文化社, 1988)
- 劉國平 著, 「蘇聯東歐國家對社會主義發展」(湖南省：湖南人民出版社, 1991)
- 馬洪 著, 「現代中國經濟」(北京：中國出版社, 1991)

社會主義는 왜 失敗했는가 (강의기본자료)

1993年 2月 17日 印刷

199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山73-13

電話：901-7123~4

印刷處：江閔印刷社

(통연 93-2-13)

